

신뢰(信賴)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수현

새해 들어 몇 일 전 어느 신문의 독자 컬럼에서 경찰관이라고 밝힌 분의 글이다. “..... 큰 병원에 가면 맹장(충수돌기염) 수술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누구나의 소박한 생각일 것이다. 병원측은 하복부의 심한 통증과 고열, 구토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수시간 동안 각종 검사를 거쳐 맹장염은 아닌 것 같다며 진통제 처방만 해줘 돌아왔지만, 다음날에도 통증이 그치지 않았다. 동네 의원을 찾은 결과 맹장염이라며 수술할 수 있는 그 병원에 가 볼 것을 권해 결국 때늦은 수술을 받았다. 3일 후 퇴원을 장

담하던 그들로부터 3주 가까이 입원하는 고생을 덤으로 받았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회복이나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항의 한마디 없이 잊으려 애썼다. (중략) 치료 기간이 턱없이 길어진 이유를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신뢰가 성공의 조건인 것을 사람들은 왜 무시할까.”

시계바늘을 10여년 전으로 돌려 보자. 카드뮴 생산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김OO씨는 관절통, 근육통 그리고 경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카드뮴에 의한 직업병 상담을 하었는데, 신기능, 간기능 그리고 폐기능은 정상이었다. 그러나 A기관에서 측정한 혈액과 소변의 카드뮴 농도가 높았다. 당연히 근로자 김씨는 높은 카드뮴 값으로 직업병 인정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관례대로 다른 검진기관에서 정밀검사가 시행되었고, 공교롭게도 카드뮴 값은 앞서 제시된 값의 30분의 1 밖에 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극히 당연히 낮은 값을 제시하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였다. 어느 누구도 어느 값이 진정한 참값인지 알 수 없었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다. 우선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건강진단에 대한 정도관리 제도가 거론되었다. 분석정도관리, 진폐정도관리, 청력정도관리 등이 도입되어 건강진단기관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의 일이다. 이후 비슷한 사례로 감론을박하였던 일이 그렇게 많이 기억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나름대로 신뢰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급여 내용이 국민건강보험의 수혜보다 상위에 있는 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항상 존재하며, 조그만 틈만 있어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2년 9월 26일, H일간지의 '기아車, 직업성난청 검진 축소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노조는 최근 3년간 특수검진기관의 판정 오류로 근로자 226명이 제대로 판정 받지 못하여 직업병 난청자의 축소·은폐가 있었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기구로 전국 특수검진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사 면허 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일견 검진기관, 검진의사에 대한 불신이 짙게 풍기는 내용이다. 전문직, 전문기관에 대한 불신 위에서 근로자 건강을 운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산업보건에서 신뢰가 깨졌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 자신이다.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X선 촬영기, 순음청력검사기, 작업환경 시료 및 임상검사 분석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기기들을 다루고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사람인가? 두 말 할 것 없이 신뢰는 기기보다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기기가 뺄어 놓은 값을 쓰다듬어 보는 정성과 경험에서 신뢰는 싹트는 것이다. 시료 채취에 문제는 없었는가? 시료 운반, 보관, 처리에 문제는 없었는가? 기기 분석에 이상은 없었는가? 지난 검사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이 근로자의 순음청력도

를 보아서는 일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실제로 그런가? 소변의 카드뮴 농도로 이러한 값이 나왔다면, 이 근로자의 콩팥 기능은 괜찮을까? 지난 3개월 전에 측정한 소변의 카드뮴 값이 어느 정도였는데, 그동안 이 정도의 값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등등 기기가 쏟아 놓은 검사결과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역량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설명하여 줄 때, 전문가로서의 신뢰는 쌓이는 것이다.

따라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검사결과는 당연히 다시 측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피검자의 비협조 내지 거짓 반응, 재검사 비용의 부담, 일사천리로 검진을 해야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부적절한 수가, 제대로 값도 쳐주지 않는 기술료 등등 현실에 그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모면은 많은 경우에 그런대로 통할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 때 가서 그것이 관례였고, 그리고 서로 늘 그렇게 해 왔던 일이 아니었던가 하고 항변하여 보았자 통하지 않는다. 현실과의 타협으로 전문성을 포기하였을 때, 잃어버린 신뢰는 단시간에 돈으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후유증은 깊고도 길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리고 하여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이다.

계미년 정초가 산업보건인들의 전문성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